

사설

핑계는 그만두고 법 앞에 서길

최근 대한민국 정치에서 두 사람이 논란에 휩싸였다.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현 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특별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기소를 받은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169명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대국민 호객행위’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비열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양당 모두 국민들에게 해당 의혹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커녕, 상대를 이용한 핑계만을 대고 있다. 국민들이 그

렇게 혐오하고, 정치에 등 돌리게 만든 구태 정치의 모습을 다시 답습하고 있다.

물론 지저분한 진흥당 싸움을 피하고 싶어서 법 앞에 서지 않고 핑계만을 내세우는 걸 수도 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의혹’에 불과하다더라도, 법 앞에 서는 것이 의혹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법 앞에 서야 한다.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법 앞에 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흥당 싸움이라 할지라도, 승자는 무조건 존재하고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한 SBS의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모두 ‘긍정’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그들의 핑계를 간파하고, 법 앞에 서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는 두 사람과 양당이 답할 차례다. 핑계는 그만두고 법 앞에 서기를 바란다.

석탑추추

기억을 걷는 호랑이

○… 호형들, 한가위는 잘 보냈소? 이번 한가위에는 백 년 이래 가장 둥근 보름달이 우리를 반겼소. 백 년 전 보성전문학교 호랑이들도 이만큼 둥근 달을 보았던 건가. 다음 기회는 2060년이야네. 40년 뒤 호랑이들도 둥근 달을 보며 우리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네.

○… 둥근 달에 소원은 빌었는가? 한 호형은 달을 보며 “연휴가 끝나도 학교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다네. 그런데, 바로 옆에서는 이상한 소원을 비는 사람이 있더군. “학교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구열이 뛰어난 호형을 만나 반가워 말을 걸었소. 알고 보니 호랑이가 되고 싶은 입시생이었다네. 꼭 호랑이가 되어 학교에 가고 싶은 이 마음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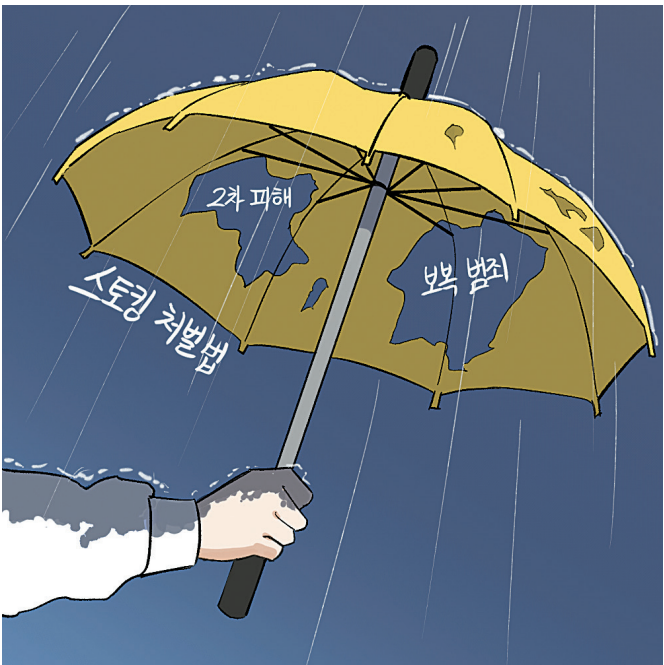
○… 연휴가 끝나고 수업을 듣자니 몸이 아주 무거웠소. 한 호형은 강의보다는 축제에 더 관심을 가지더군. 강의 시간 내내 졸다 나온 호랑이들은 민주광장의 달달한 팝콘 냄새에 잠을 잤다 하네. 축제에 즐겨워하는 호형들 뒤에는 축제 준비에 바쁜 호형들도 있구려.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소. 공과대에서 준비한 축제는 태풍으로 인해 결국 취소하게 됐소. 축제 준비를 열심히 했던 호형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네.

○… 학교가 시끌벅적해 축제가 계속된 줄 알았더니,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호형들이 많더군. 중앙광장에서는 총장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호형들이 있더군. 호랑이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호형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네.

김시현 취재부장 poem@

석탑만평

조은결 전문기자



고대신문사 The Korea University Weekly

1947년 11월 3일 창간	취재2부장	류요셉	총무국	02-3290-1682
주간	매주 월요일 발행	기획1부장	엄선영	중앙일보
		기획2부장	윤혜정	
발행인	정진택	사진부장	강동우	매일
편집인 겸 주간	김재환	미디어부장	김채연	페이스북
				플러스친구
편집국장	이원호	편집국	02-3290-1683	주소
취재1부장	김시현	세종 편집국	044-860-1888	청산MK문화관 6층

‘초고령사회’ 한국과 본교의 ‘숙년(熟年)사회연구’

시론

송완범
고려대 교수·
고령사회연구센터장



2025년이 되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정확하게는 20.3~20.6%가 65세가 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한국의 정해진 미래일 것이다. 우리는 수년 후 한국의 확정된 미래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와튼 스쿨의 국제경영학 교수인 마우로 기옌(Mauro F.Guillen) 교수는 <2030 추의 전환>에서 2030년경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60세 이상이 35억 명에 이른다고 한다. 만기 어렵다면 통계를 보라. 고령자 인구가 7%인 ‘고령화사회’에서 20%인 ‘초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프랑스(143년), 미국(88년), 이탈리아(81년), 독일(77년) 순이다.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일본(35년), 중국(32년), 한국(25년)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 중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때가 각각 2005년, 2008년, 2009년도였다. 언급한 나머지 나라들도 대개 2030년 근방이 되면 하나같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이제야 기옌 교수의 통계가 피부에 와 닿는다면 매우 둔감한 것이다.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부는 2001년 이후 출산율이 1.2명 미만으로 낮아지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워 2006년도부터 5년 단위로,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정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가 정부 부처 간에도 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재부(인구정책T/F)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민족고대’는 ‘초고령사회연구’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행히 올해 가을 총장 직속의 ‘고령사회연구원’이 출범한다. 이에 앞서 2020년 7월 문과대학 글로벌일본연구원 산하 고령사회연구센터(이하 고사연)가 설립돼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사연’은 <2022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 에이지 프렌들리(Age Friendly)>를 출간해 20세기 초 만들어진 낡은 ‘노령담론(narrative of aging)’을 넘어, 앞으로 맞이할 고령사회 문제에 실용성 있게 접근하고자 했다.

책상 앞에 고사연을 구상할 당시 적어둔 메모가 붙어 있다. 첫째,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고령사회라는 먹구름을 한국의 장래와 접목해 해결방안을 대학이 제시하자. 둘째, 방법론으로서는 초고령국가 일본의 경험(성공과 실패)을 한국 사회에 투영하자. 셋째, 대학의 연구 제안을 가까이 있는 행정, 나아가 중앙정부의 과제와 접목하자. 넷째, 학·관·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여기서 얻어진 제안은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더 나아가 인류 전체

에 도움이 되게 하자. 이상의 제안은 아직 유효할 것이다.

실질적인 연구에 앞서 방향성에 대한 집중적인 숙의(熟議)가 필요하다. 이른바 ‘고령사회연구’는 ‘숙년(熟年)사회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가수 노사연의 ‘바람’(2014) 가사 중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멋진 구절이 있다. 늙어가는 것과 익어가는 것의 차이, ‘고령’과 ‘숙년’의 차이야말로 ‘고령사회연구’의 밑바탕을 이루는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

본디 ‘숙년’이란 말은 일본에서 1960년 경에 처음 등장해 80년대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래의 장년 혹은 고령자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의 장년과 노년 사이의 60세부터 80세 혹은, 정년 후의 셀러리맨을 대상으로 하는 45세부터 69세(혹은 65세)를 가리킨다. 본교 ‘숙년연구’의 대상은 양자를 아우르면 좋겠다.

‘숙년’은 장년에서 바로 고령 노인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누구나 오래 살기 바라지만, 아무도 늙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어느 성인의 말처럼 고령, 노년의 부정적 이미지를 순화시킬 수 있다. 앞으로의 ‘숙년연구’는 기존의 특정 학문 단위에 의존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본교의 ‘숙년연구’는 학내의 총체적 학지를 결집해 실천적인 성과를 수반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레바퀴

수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법

힘들 때 견디는 자는 이류, 즐기는 자가 일류라는 말이 있다. 수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으면 수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학 교과서도, 학원 선생님도 수학을 즐기는 법을 알려주지 못한다. 잘 몰라도 일단 해 봐야만 수학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 이해하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연습을 하면 이해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가 탄생한다. 적어도 이들에게 수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할 기회는 쥐야 한다.

사실 수학이란 학문에서 재능은 필수가 아니다. 수학과 교수님에 따르면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연습하면 이해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에 공부 방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 수학 과외나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경험으로미루어 봤을 때도 그렇다. 대부분의 학생

들이 수학 공부하는 법을 모른다. 핀트가 엇나간 질문을 들 때마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그다지 설득력은 없나 보다. 그래도 정구 교육에서는 이것을 알려 주려 노력해야 한다. ‘하면 된다.’

수학과에 입학해서 가장 놀란 점은 많은 교수님들이 전공 수업 첫 시간에 고등학교까지의 수학은 잊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은 뭐란 말인가?

중고등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과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다. 반면에 수학과 전공 시험지에서 억지로 복잡하게 만든 문제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이렇게 묻는다. ‘너 이 개념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것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어?’

항상 의문을 던지고 더 알고려고 하는 것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중요하다. 그

래야 수학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물음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수학이 좀 더 진정한 수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는 데에도 호기심이 도움은 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

고등학교까지의 수학은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는 자신의 호기심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 수학보다 다른 분야에 뜻이 있는 학생에게는 자신의 노력을 증명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 지금의 복잡한 계산 문제만으로는 학생의 노력은 시험할 수 있지만, 학생의 호기심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 수능 탐구 영역에 수학을 신설한다면, 수학 선택과목에 ‘고급 수학’을 만들어서 좀 더 대학 수학에 가까운 내용을 묻길 제안한다. 우리나라에서 수포자라는 단어가 사라지길 바란다.

강동우 사진부장 ellipse@

중단횡단

선택에 회의가 들 때

나는 사진으로부터 지독한 문외한이다. 사진을 찍는 것도, 찍히는 것도 모두 내 흥미 밖이었다. 사진기자가 된 것은 순전히 타이밍의 장난이었다. 1학년 여름방학을 허투루 보낸 것에서 기인한 후회, 비대면 시국에 교내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소망, 그러던 찰나에 나에게 고대신문을 소개해준 과 동기.

처음엔 마냥 재밌었다. 내 사진으로 장식된 면이 그렇게나 예뻐 보였고, 뻥뻥한 글씨 중 볼드 처리된 내 이름 석자는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했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쏙 끌렸던 걸까? 점점 이 일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무거운 카메라를 손에 들고 8km의 구국대장정을 달려야 했고, 입실렌티에서 모두가 싸이와 함께 뒤흔 때 나는 뒤흔

었다. 나는 항상 관객석의 맨 앞자리에 있었지만 내 눈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무대가 아닌 카메라 화면뿐이었다.

사진이라는 수단의 특성은 나를 더욱 좌절하게 했다. 최고의 사진을 위한 최선의 타이밍은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 때로는 아예 오지 않을 때도 있다. 그리고 내가 기울인 노력과 별개로 내 사진에 대한 평가는 피사체의 모습에 의해 좌우된다. 사진에 있어서 사진기자는 한없이 수동적인 것이다. 이런 작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며 화롯불처럼 힘차게 타오르던 내 열정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많은 동료 기자들에게도 찾아왔을 물음이나에겐이 무뎠 찾아왔다. ‘신문사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까?’ 쉽게 답을 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신

문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 일상은 어땠는지 먼저 고민해봤다. 그러나 신문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 예상이 잘 안됐다. 그렇다면 신문사 활동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진 않을까 생각해봤다. 그것은 더욱 가늠이 안 됐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연히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인생엔 너무도 많기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는 정답이 없는 질문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고민했어야 하는 것은 ‘신문사에 들어오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신문사에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였다. 옳은 선택 따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선택을 옳게 만드는 과정만이 있을 뿐.

문원준 기자 mondlicht@